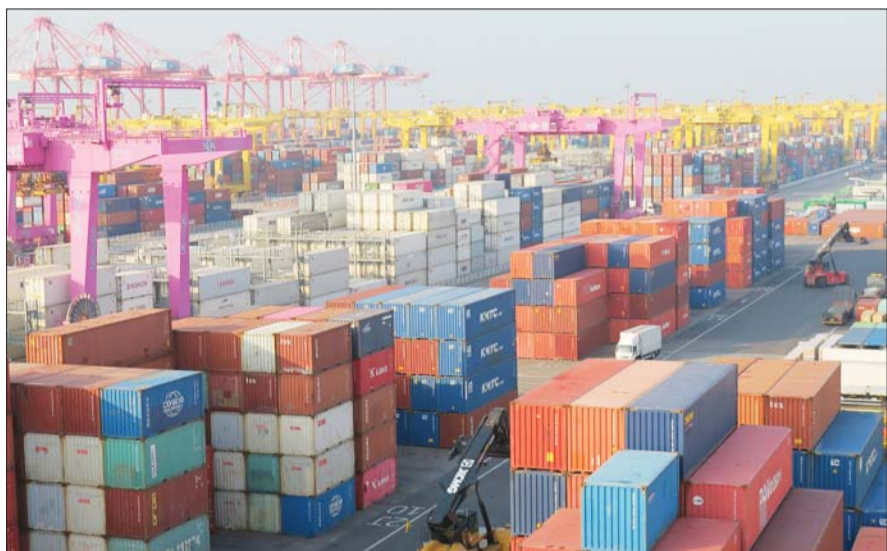


소비위축·주택경기 둔화에... 기업 체감경기 2년만에 '최악'

한은, 11월 기업 경기실사지수 전산업 BSI 75p, 3개월 연속 하락
도소매업·임대서비스 등 하락세
석유정제·화학물질 등 제조업 ↑
다음달 전산업 전망은 2p 내린 74



23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경기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주택경기 둔화 등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11월 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의 업황 BSI(실적)는 75포인트로, 지난달(76)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20년 12월(76) 이후 1년 10개월만에 최저치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지

표로, 지수가 100을 밑돌면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달 조사는 지난 8~15일 3255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2782개 기업(제조업 1628개·비제조업 1154개)이 설문

에 답했다. 전산업 BSI는 지난 7월 80에서 8월 81로 올랐지만 9월(78)과 10월(76)에 이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비제조업BSI가 전월 대비 3포인트 내리며 2021년 2월(72)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수부진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도소매업(-5포인트)과 건설경기 부진과 주택경기 둔화, 부동산 약화 등으로 임대서비스(-7포인트), 건설업(-4포인트) 등이 전월대비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74로, 전월(72)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달 제조업 업황BSI가 상승 전환한 것은 글로벌 여행수요 복원에 따라 항공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유정제·코크스(+12포인트)가 올랐고, 화학물질·제품(+11포인트)가 신소재 분야 확대 등 수익성 다변화에 따라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력공급장비 등 전기설비 장비의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장비(+11포인트) 부문도 전월 대비 상승했다.

제조업 규모와 형태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은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다음달 전산업의 전망BSI은 2포인트 내린 74로 2021년 1월(7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업황전망BSI가 건설업(-7포인트), 도소매업(-3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77을 기록했고, 제조업 전망 역시 전자·영상·통신장비(-13포인트), 고무·플라스틱(-12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4포인트 내린 69를 나타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이달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4.1포인트 내린 91.4를 기록했다. 2020년 12월(85.6) 이후 최저치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4.1로, 1개월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中·홍콩 바닥 확인”... 외국인 ‘바이 차이나’

(buy)

● 차이나 뉴스&리포트

방역정책 변화 조짐에 '증시 긍정론'
“코로나 대유행 이후 투자할 적기”
“아직 전환점 아냐” 일부 경제론도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일부 도시가 다시 봉쇄되고 있지만 일단 방역 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의 하락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할 것 없이 기업들의 가치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Allianz GI) 토비아스 프로스 최

고경영자(CEO)는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반등을 위해 투자할 적기”라고 밝혔다.

알리안츠 GI는 유럽의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다.

그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 이후에는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의 기회를 잡기 위해 앞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내년 본토 증시의 반등폭이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HSBC 역시 그간 악화됐던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턱여라운드 할 것으로 분석했다.

GF증권의 다이강 전략가는 “중국과 홍콩 증시의 바닥을 확인했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제 투자자들은 중국의 성장 재가속을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2년여 만에 ‘낙관’으로 전환했다.

외국인들의 자금도 유입됐다. 외국인인 이달 들어 지난 주말까지 410억위안 규모의 중국 본토 주식을 순매수했다. 앞서 시진핑3기 출범으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600억위안에 달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특히 부동산과 소비 관련주를 사들였다.

다만 경제론도 여전히 다르다. JP모건 프라이빗뱅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방역정책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국은 엄격한 봉쇄 조치와 대량 검사 등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AP·뉴시스

완화가 시험대에 올랐으며, 방역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중국 증시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투자자들에게 최근의 반등을 뒤쫓지는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확산세다.

중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2만 7307명이다. 지난 16일 이후 여섯째 2만명대다. 특히 베이징에서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베이징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전일 1426명으로 하루 사이 500명 가까이 급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탄소중립 가속도로

- 친환경 충전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 유해소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시스템
- 기후변화 위기 대응, 탄소중립숲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경영**

ex효과

나비의 날개짓이 세상을 변화시키듯, 한국도로공사는 우리 인류의 미래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ESG경영으로 새로운 세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포용의 가속도로

- 국가교통 데이터 민간개방, 오픈마켓
-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 광경병원 개원
- 중소기업 판로 및 지원, 통합 기술마켓

안전중심 가속도로

- 휴먼에러 없는 안전한 스마트 작업장
- 휴식마일리지로 화물차 의식개선
- AI 적재물량 단속으로 실시간 위험제거

국민눈높이 윤리경영

- 지속가능한 윤리준법 경영체계 구축
- 부패영향평가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ex 한국도로공사